

社說

수행 안하는 재가자 각성하자

‘수행의 종교’라는 불교에 멩어가 씌워졌다. 재가자 10명 중 7명이 수행을 안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이웃 종교인보다도 수행을 더 안했다. 이 결과는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의 ‘2013년 한국의 사회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실천 중인 수행?기도법 유무에 대한 질문에 29.6%만이 ‘수행법’이 있다고 답했으며, 70.4%는 수행법이 없었고 밝혔다. 반면 타종교인들은 39.1%가 수행을 한다고 말해 불자들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을 하는 불자들은 대부분 염불과 호흡명상(21.3%)을 선호했으며, 경전 읽기(18.7%), 봉사(12%), 절 수행(9.3%) 등이 뒤를 이었다. 조계종의 수행법 인가화선은 4%만이 수행을 하고 있었다.

현재의 수행법을 선택한 이유는 ‘일상생활과 병행하기 쉽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8.7%, 이해와 실천이 쉽다는 답이 20%였다. 수행을 통해서 큰 효과를 기대한다는 답

변은 8%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불자들은 왜 수행하는 이들이 적을까. ‘수행법을 몰라서(32.0%)’가 가장 많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9.2%)’와 ‘수행이 어려워(18.5%)’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수행의 종교를 표방하는 불교 신자 70%가 수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신행 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종교행사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수행하는 응답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신자들이 정기적으로 사찰에 다닐 수 있게 하는 것도 수행 문화 확산과 직결될 수 있다. 또한 수행하지 않는 이유중 하나가 수행 방법을 몰라서라고 답하는 이들도 많았다. 쉽고 체계적인 수행법 보급이 이뤄지지 못해 수행의 필요성을 신자들에게 일깨워 주지 못한 것이다.

이 문제들은 단시일내에 해결될 것이 아닌 만큼 차기 집행부에서 좀더 신경써서 효율적인 장기적 신도 수행 마스터플랜을 짜야 할 것이다.

다문화,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추석

민족의 명절 추석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 천만 명이 귀향길에 오르는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고 가족과 친척들은 재회의 기쁨을 만끽할 것이다. 여기에 올해 추석은 주말이 포함돼 소외 ‘황금연휴’다. 그만큼 고향 앞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가벼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추석이 부담되고 마음만 무거운 사람들이 있다. 소외계층과 지역민 타향에서 명절을 맞는 이주민 노동자, 다문화 가정 사람들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주민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은 아직 우리 사회의 편견 때문에 더욱 외로운 존재이다. 이들을 위해 불교계도 이주민 체육대회나 차례 행사 등을 진행했지만 대부분 지속적인 행사가 아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로 조사됐으며 이로 인해 불자들이민들이 가톨릭과 개신교로 개종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종이 문제가 아니라 자비의 종교인 불교가 소외 계층을 품지 않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추석이 진정한 풍요의 계절로 자리매김하려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소외된 계층과 함께 나누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런데도 남아야 어쩔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못된 풍조가 아직도 사회 일각에 버젓이 남아 있는 게 문제다. 불우이웃 돕기는커녕 돈을 몰 수 뜻 뿌리는 과시적 소비로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게 고작인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말이다. 이래서는 사회 통합이란 한낱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

‘다문화사회와 한국불교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불교계 이주민지원시설은 가톨릭, 개신교의 운영시설에 비해 부족한 것으

로 명절이면 마을을 돌며 음식을 모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 주던 조상들의 따뜻한 마음씨가 새삼 돋보이는 시절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해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회사용 연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용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령을 준수한다

일본, 올림픽 정신에 맞는 품격 갖길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2020년의 올림픽이 동경에서 개최기로 결정된 순간 일본 수상 아베는 월드컵 결승전에서 골을 넣은 대표팀 감독처럼 별책 일어나 환호하였고, 전 일본 열도는 기쁨과 흥분으로 출렁거렸다.

필자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떨떠름한 느낌을 가졌다. 이러한 떨떠름한 감정은 사촌이 눈을 산다고 배 아파하는 그런 질투심에서 나온 것은 결코 아니다. 나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의 일본을 미워할 정도로 질긴 사람이 아니다.

필자의 꺼림칙한 느낌은 과연 일본이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품격을 가진 나라인가 하는 점이고, 그리고 올림픽이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상업화되었다는 점에 있다.

하위징어(Huizinga, J.)라는 네덜란드의 역사가는 인간을 ‘놀이하는 존재

(Homo Ludens)’로 보면서 “문명은 놀이 안에서, 그리고 놀이로써 발생하고, 전개된다”고 말했다.

놀이는 실제적인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자발적인 활동으로서 놀이 자체를 즐기는 정신적 육체적 활동이다. 그리고 놀이는 규칙성과 경쟁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스포츠는 대표적인 놀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를 통해 인간의 소의를 극복하고 공동체감을 기르고 개인과 사회의 행복에 큰 기능을 한다.

근대 올림픽의 제창자 쿠베르탱은 스포츠를 통해 세계의 청소년들이 손을 맞잡는 일이며말로 ‘세계 평화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자비로 출판하던 교육 잡지에 올림픽 경기를 소개하면서 올림픽 재건을 강조했다. 그 후 올림픽 정신은 인간 정신의 자량으로 천비되기도 하였다. 이런 글을 모아 조립하여 인용해 보자.

“사람보다 더 높이 뛰고 더 잘 달리고 더 힘센 짐승들도 많다. 그러나 동물의 세계에서는 올림픽이 없다. 올림픽은 힘과 기예의 자량이 아니라 인간정신의 자

량이다. 세계의 인종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둔 게 있다면 그것은 올림픽뿐이다.”

그런데 어쩌랴. 그렇지 못하다. 스포츠에서 제일 강조되는 것이 스포츠맨십, 즉 스포츠맨 정신이다. 스포츠맨십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인내력, 용기, 자기절제, 협동, 공정성 등을 포괄하는 가치

**전쟁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
올림픽 개최국으로 여법한가
상업화 올림픽 각성 필요도**

와 행동이다. 어린 시절 축구를 즐겼던 프랑스의 저명한 실존주의 소설가인 카뮈(Camus, A.)는 “나는 윤리에 관한 모든 것을 스포츠에서 배웠다”라고 말한 바 있다. 기실 우리 대부분이 경험한 스포츠는 실제로 우리의 윤리적 가치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검증받고, 학습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2020년에 이 위대한 올림픽을 일본이 개최한다니 어

찌 떨떠름하지 않겠는가?

아베 정권의 일본의 최근 행각에 대해 지면을 쓰고 싶지 않다. 검은 담장에 검은 멧칠을 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올림픽이 일본에 다가가는 그 추한 모습이 안타깝다. 올림픽 정신의 타락과 실종은 자주 회자되어 왔다. 올림픽이 화폐의 노예가 되고, 국가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다든지, 귀족화되었다든지 하는 이야기들은 이미 풍성하다. 그래도 올림픽은 지구촌의 축제적 성격은 아직 지니고 있다.

그런다고 해도 희망을 가져 보자. 세상에 힘 없는 것이 어디 있으랴. 올림픽 정신의 재건에 대한 논의도 한층에선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래도 규칙이 공정하게 적용이 잘 되는 곳 스포츠가 아닌가. 정치판보다 훨씬 도덕적인 곳이다. 그리고 일본도 변할 것이라 생각한다. 의식 있고 선량한 일본인도 많다. 2020년에는 일본이 스포츠 윤리를 갖추고 올림픽 정신과 어울리는 품격 있는 나라가 되리라 믿고 싶다.

그러면 어쩔 거냐. 2020년 동경 올림픽의 개최를 축하해 주자.

‘청년의 사표’ 무진장 스님 추모

“청년 불자를 아꼈던 스님, 사랑합니다”

9월 9일, ‘청년의 사표’로 불리웠던 무진장 스님이 원적에 들었다. 스님은 세속의 옷을 벗어냈지만, 그 여적들을 추모하는 발걸음은 SNS와 웹 공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의 추모 글들을 갈무리해 봤다.

<편집자 주>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이 9월 10일 조계사 대웅전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늘 존경했던 스님이었는데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시니 슬프기가 바다같습니다. 생전에 무욕으로 사셨던만큼 서방정토 천진미타하시고 구품안락 무열열반 하소서!

<제문 스님 페이스북 중>

동산불교대학장 무진장 스님께서 입적하셨습니다. 그 동안 한번이라도 더 찾아보아야 했는데... 무척 슬픕니다.

<트위터 @feel_full >

되겠지만 나하고 인연 있었던 분들의 죽음은 슬픕니다.

<트위터@dph0108>

서울 도심 한복판에 머무르면서도 항상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했던 무진장 스님은 돈에 의해 수행이 무너지는 것을 경계한 원칙주의자였다. 승복도 갈아입기 위해 딱 두 벌밖에 없으며 그 흔한 인터뷰 기사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안빈낙도하신 절약과 무소유의 표상이 되신 분이다. 언제나 율장에 따라 객색으로 된 승복을 착용한 것으로도 유명한 스님의 삶은 부처님 법대로 사는 여여(如如)한 삶 바로 그것이었다.

<하도겸 씨 페이스북 중>

예전에 조계사에서 한철 모시고 살았던 무진장 스님께서 어제 새벽 입적하셨습니다. 유일한 생자이신 진관 스님에게 위촉하시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막상 입적소식을 들으니 허전한 마음 뿐입니다. 육체적 인연이야 때가 되면 벗어 버려야

<트위터@khjsujin>

원적에 드신 무진장 스님의 영전에 삼가 엎드려 스님을 생각합니다. 열반의 길, 대해탈의 길에 드시어 다시 한번 중생제도의 큰 원을 발하시어 시장세계에 오시기를 기원합니다. 스승님이 바라신 일 다하지 못했는데 홀연히 떠나신 스승님을 다시 뵈기 청하옵니다. 무진장 큰 스님은 위대하신 스승님이었습니다.

<ID 장승훈>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례)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무원의 및 책자 신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환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물,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